



Worldview Special 부부란 무엇인가?

이 글은 결코 과학적 연구나 분석의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무게 있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가장 규정하기 어렵다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보통의 부부에게서 일상의 수다처럼 청취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가벼운(?) 글이라 해서 그 내용이 갖는 의미나 가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현실'을 그리고 그 현실을 사는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창(窓)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편집부**

두 가지 질문

'부부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와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을 건넵니다. 30~40대 연령층의 부부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0~40대에 주목한 것은 아닙니다.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다 보니 자연스레 나온 결과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보니, '부부' 혹은 '부부의 관계'에 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서로 동등한 관계이며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30%)', '운명의 동반자(20%)', '둘이 협력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게임동료(10%)', '특별한 친구(10%)'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고 '웬수지간'이란 대답도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사랑(30%)', '신뢰와 믿음(25%)', '배려(15%)', '존경(10%)', '이해(10%)'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기타 응답으로 '돈, 성(sex), 대화'가 나왔습니다.

동등과 사랑

'팬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헌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동등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가장 많고,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이지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몰라서 때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와 실득, 계몽을 통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라는 말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엇이 오늘을 사는 평범한 부부들이 현실의 문제를 깨고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지에 관해 교외와 관련 전문가들이 더욱더 철저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부부란?

인터넷 검색창에 '부부란 단어를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직접 실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얻은 결과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요, 장례식 손님은 자녀의 손님이다. 장례식 손님은 대부분 고인보다 고인의 가족과 관계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가족이요, 그중에 아내요 남편이다. 젊을 때 짝은 사전을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 곁에 다가서서 기대어 있다. 그런데 늙어서 짝은 사전을 보면 남편이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있다. 젊을 때는 아내가 남편에 기대어 살고, 나이가 들면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서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다. 여보(如寶)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는 말이고, 당신(眞身)은 '내 몸과 같다는 말이다. 미누라는 '미주 보고 누워라'의 준말이고 여편네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다 곁을 떠난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부부란 무엇입니까? 대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른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현명입니다.